

한국어의 명사 II

홍재성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 인지과학 협동과정

1. 예비적 지적

한국어 명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이 두 번째 글에서 우리는 통사·의미론적 관점에서의 한국어 명사의 특징적인 몇몇 유형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어 명사는, 단어가 성·수 또는 시제·양태(modality) 등의 문법 범주에 따라 형태가 변이하는 양상을 다루는 굴절형태론(inflexional morphology) 차원에서 특징지어지고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한국어 명사는 어떠한 언어적 맥락에서도 형태적 변이를 보이지 않고 항상 동일성이 유지된다—, 굴절형태론적 하위 유형은 설정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휘 형태소들 사이의 결합관계로 이루어지는 단어의 내적 구조를 다루는 어휘형태론(lexical morphology)의 관점에서는, 한국어 명사를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눌 수 있고, 복합어는 파생어(튀김, 달리기, 지게/군소리, 꽃고추), 합성어(물불, 잘잘못, 기와집, 여러분, 작은집, 들은 풍월 또는 집집, 곳곳과 같은 첩어), 혼성어(오피스텔) 등 하위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앞의 글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한국어 명사는 단어보다 상위 층위의 통사

단위인 구(phrase) 구성의 차원에서 관찰되는 다음의 통사적 속성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 (1) 반드시 격조사가 후치될 수 있다.
- (2) 관형사를 비롯한 여러 유형의 수식 성분이 선행할 수 있다.

또한 문장통사론의 층위에서 한국어 명사의 속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 (3) 주어 또는 보어와 같은 문장 구성의 필수적 통사 논항의 기능을 하는 구의 핵심적 요소가 된다.
- (4) -이와 결합하여 서술어로 기능할 수 있다.

속성 (3)은 속성 (1)의 일종의 계(corollary)와 같은 성격으로, 두 속성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고 하겠다.

(1)의 속성은 한국어의 모든 명사가 정의상 공유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명사의 하위부류가 설정되기는 어렵다. 다만 명사에 따라서는, 앞의 글에서 관찰한 바와 같이, 개별적으로 격조사 결합에 특이한 제약을 보이는데, 이러한 특이성에 근거하여 명사의 유형을 나누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가나 -을/-를 또는 -의에만 선행하는 명사는 당연히 (4)의 속성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행태를 보인다.

그러나 (2)의 속성에 바탕을 두고, 여기에 의미적 특성을 결부시키면, 한국어 명사는 비교적 명확한 하위 유형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이 논의에서 하나, 둘, 셋과 같은 수사와 나, 너, 이, 그와 같은 대명사의 문체는 편의상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이른바 자립명사(실질명사)와 의존명사(형식명사)의 구분 및 의존명사의 세분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또 한편, 한국어 명사부류는 개개의 명사 어휘가 표상하는 개념 또는 지

시대상의 유형에 따라 여러 하위 의미부류로 분류될 수 있다. 인간의 언어로 표상되는 개념의 보편적 유형을 경험적·실증적으로 한정해 보고—사람·사물, 양, 속성, 관계, 시간, 처소, 사건, 상황 등—, 이것들이 개별 언어 단어의 품사(명사나 동사, 형용사 등)나 형태소 유형(굴절접사나 파생접사)과 대응되는 양상을 관찰해 본다면, 일대일의 단순 대응이 아닌 다대다의 복합대응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한국어에서 처소(location)의 개념은, 그 여러 국면이, 위, 아래, 옆과 같은 공간 명사나 집, 학교, 산, 들, 운동장과 같은 장소 명사 이외에도, 대명사(여기, 저기), 부사(가까이, 멀리, 군데군데), 형용사(가깝다, 멀다), 격조사(-에, -에서, -로) 등 여러 범주의 요소로 실현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 한국어 명사의 의미는 사람·사물, 처소 이외에도 시간(때, 지금, 순간, 올해, 봄, 아침), 수량(전부, 대부분, 다량, 소량), 속성(까맣, 부드러움, 위대함, 젊음), 사건(출발, 도착, 파괴, 지진, 해일, 경기, 행사, 죽음, 탄생, 응고, 변화) 등의 다양한 개념 유형에 대응될 수 있고, 또 이들 개념 유형은 더욱 세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의미 특성에 따른 명사 분류체계는, 특히 그것이 보편적 개념 유형과의 대응을 넘어서서 각 부류가 개별 언어인 한국어 어휘 부류로서의 언어적 특성—예컨대, 조사 또는 동사/형용사의 서술어 유형에 따른 체계적 결합 관계의 특성 같은 것—을 잘 반영하는 것이라면, 한국어 명사의 이해에 중요한 측면이 될 것이다.

보통, 하나의 단어는 명사나 동사 또는 형용사 등 품사 체계상의 한 부류에 귀속이 되지만, 범주상의 전이가 일어나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품사로 사용되는 현상, 즉 다범주 단어가 존재하게 되는 현상—이와 관련하여 명사가 주어/보어의 필수적 통사 논항의 기능을 넘어서서 이들 통사 논항이나 서술어를 수식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현상— 또한 범언어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다. 예컨대, 한국어 단어 지금이나 오늘은, 다음 (5)-(6)의 예문에서 보듯이, 위의 (1)-(3)의 속성을 모두 공유하는 명사이지만, (7)-(8)에서와 같이 부사로 쓰일 수도 있는 것이다.

- (5) 모든 것이 합의가 된 지금에 와서 뒤늦게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난들 어떻게 하겠니?
- (6) 그와의 면담을 오늘로 미루어 놓았었는데, 날짜를 다시 잡아 봐야지 안 되겠어.
- (7) 너 꼭 지금 떠나야 되겠니?
- (8)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에게 연락을 하거라.

이와 같은 품사 전이의 유형과 범위를 여타 언어들과의 대조적 관점에서 잘 관찰해 본다면, 한국어의 품사 체계상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7-8의 지금, 오늘 이외에도 당장, 즉시 등 일부 시간명사는 부사로 전용이 되는데, 이는 범언어적 일반성을 반영한다. 그러나, 영어/프랑스어 등에서와 달리, 한국어 명사가 동일 형태를 유지하면서 형용사로 범주가 바뀌는 사례는 없다).

2. 한국어 명사의 유형

2.1. 명사의 유형을 문제삼을 때, 일반적으로 여러 언어에서 관찰되는 하위 부류로 보통명사/고유명사, 유정명사/무정명사, 구상명사/추상명사, 가산(countable)명사/비가산(uncountable)명사, 또는 물질명사, 집합명사 등의 구분이 빈번히 언급된다. 그러나 이들 부류 개념이 한국어 명사를 특징짓는데 적합하고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 또는 한국어 명사를 특징짓기 위해서는 그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어야 할지는 신중하게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다음 몇 가지 점만 지적하기로 한다.

— 보통명사/고유명사의 구분은 다음 두 계열의 명사가 보여준다.

- (9) 사람, 국가, 도시, 회사, 책 ...

(10) 기영, 백제, 광주, 삼성전자, 목민심서 ...

(10)의 명사들은, (9)의 명사들과 대조적으로, 특정한 단일 대상(개체)에 대한 명칭(name)의 성격을 지닌 요소로 보아 고유명사로 범주화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고유명사는 관사의 부재와 같은(영어나 프랑스어 고유명사 앞에는 원칙적으로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특정한 문법표지에 의해 구분될 수 없고, 글로 쓸 때 특정한 표기상의 구분(대문자 사용이나 밑줄/덧줄, 방점 등의 사용)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반드시 한국어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해나 지구는 지시대상의 유일성/특정성에도 불구하고 보통명사로 분류되며, 엘란트라나 프라이드같은 상품명(자동차 차종의 명칭)은 고유명사를 특징짓는 지시적 특성이 없고, 따라서 아래와 같이 보통명사의 행태를 보이더라도—수량표현의 가능성, -마다와의 결합, 관형사 이/이런의 선행 등—보통명사로 범주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11) ㄱ. 그의 집은 프라이드를 세 대 갖고 있다.

ㄴ. 그는 프라이드마다 최신행 오디오를 장착했다

(12) (이+이런) 프라이드는 처음 보네.

이밖에도 한국어 고유명사 범주를 엄밀히 한정해 보기 위해 살펴볼 문제가 여러 가지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명사 부류 설정의 타당성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더구나 다음과 같은 한국어 고유명사의 언어적 행태—이는 대단히 일반적인 성격의 현상이기도 한데—는 이 부류의 명사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의 필요성을 한층 더 분명히 해 준다고 하겠다.

(13) 고유명사를 어기로 하는 파생어의 형성 가능성

ㄱ. 한국적 사유방식/데카르트적 명징성

ㄴ. 이회창과 이회창식 정치행태

(14) 고유명사의 은유적/환유적 의미 전이

- ㄱ. 한국의 뉴톤
- ㄴ. 플로베르를 번역하다
- ㄷ. 온 서울이 떠들썩했다

— 유정명사/무정명사의 구분은 흔히 사람과 동물을 지시대상으로 하는 명사와 그 이외의 명사의 구분에 대응된다. 한국어에서는 격조사 -에게와 -에의 선택에 의해 두 부류의 명사가 비교적 뚜렷이 나뉘어 질 수 있다.

(15) ㄱ. 아기에게 젖을 주다

- ㄴ. 닭에게 모이를 주다
- ㄷ. 경비에게 걸리다
- ㄹ. 선녀에게 빠지다

(16) ㄱ. 꽃에 물을 주다

- ㄴ. 돌부리에 걸리다
- ㄷ. 컴퓨터에 빠지다

한편 유정명사는 살다나 먹다와 같은 동사 구문의 주어로 쓰일 수 있고, 이는 의문사 누구에 대응될 수 있는 가능성에 의해 사람명사와 그 이외의 유정명사로 다시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명사는 그밖에도 명, 사람과 같은 수 분류사(아래 2.2. 참조)와 호응하며, 유괴하다와 같은 동사 구문의 목적어 자리에 분포하는 반면, 동물명사는 의문사 누구로 지칭될 수 없고, 수 분류사 마리와 호응하며, 동사 유괴하다의 목적어 위치에는 쓰이지 않는다.

유정명사는 자라다, 번식하다와 같은 동사 구문의 주어 위치에 올 수 있는 식물명사를 포함하는 상위의 더 큰 부류인 생물명사에 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식물명사는 유정명사와 달리 심다, 시들다와 같은 동사 구문의 목적어/주어 위치에 분포된다.

이와 같이, 개념적으로 또는 지시대상의 존재론적 부류에 의해서가 아니라, 명사 어휘들의 비교적 명확한 언어적 행태—조사와의 결합 관계, 수 분류사와의 호응 관계, 적절한 동사 술어와의 양립 가능성 등—에 기반하여, 명사 부류들이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구상명사/추상명사의 구분은 상당히 모호하다.

— 수(number)가 명사 활용의 필수적 문법 범주인 동시에 관사가 존재하는—명사구의 한정성/비한정성(definiteness)이라는 지시관계의 양태가 반드시 관사에 의해 표현되는— 언어인 영어나 프랑스어의 경우, 가산명사/비가산명사의 대립은 명백하다. 예컨대, 영어에서 가산명사 *book*(책)과 대조되는 비가산명사/물질명사 *rice*(쌀)는 복수형을 취하지 않고, 단수 부정관사 *a*나 수 한정사 *two*, *three* 등이 선행할 수 없으며, 다량의 표현에는 *many* 대신 *much*를 쓴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책과 쌀—또는 종이의 경우를 관찰해도 마찬가지로—의 쓰임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단히 평행적이다.

- (17) ㄱ. 책은 마음을 풍요롭게 해 준다.
 ㄴ. 쌀은 한국인의 주식이다.
- (18) ㄱ. 오늘은 책을 좀 사야겠다.
 ㄴ. 오늘은 쌀을 좀 팔아와야겠다.
- (19) ㄱ. 이 많은 책(들)을 언제 다 읽지?
 ㄴ. 이 많은 쌀(들)을 누가 다 먹지?
- (20) ㄱ. 그 문제에 대해서는 책 한 권이라도 읽은 것이 있어야지.
 ㄴ. 농사짓는 사람들 품 들인 것 생각하면 쌀을 한 (톨+?알)-
 이라도 허투루 하면 안 된다.

한 마디로, 가산/비가산의 대립적 범주쌍을 한국어 명사의 유형화에 활용

하는 데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하겠다.

2.2. 한국어 명사의 가장 특징적이고 뚜렷한 하위 유형은 (2)의 속성에 근거하여 설정될 수 있는데, 자립명사/의존명사의 구분이 바로 그것이다. 이미 정확히 관찰되고 분석되어 온 바와 같이, 것, 인, 데 또는 개, 마리 등과 같은 단어는, (1)-(4)의 속성을 공유하는 점에서 명사로 범주화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책이나 쌀, 약속과 같은 명사와 달리 선행하는 수식 성분이 없이는 문장에 사용될 수 없다.

자립명사는 (21)에서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수식 성분과 양립할 수 있고, 특히 위의 (17)-(18), (20)에서처럼 아무런 수식 성분이 없이도 자유롭게 문장 속에 쓰일 수 있다.

- (21) ㄱ. (이+무슨+새) 책
 ㄴ. (나+기영이+여러 권)-의 책
 ㄷ. (프랑스어+언어학) 책
 ㄹ. (재미있는+지루한) 책
 ㅁ. 기영이가 내게 빌려준 책

그러나 (22)의 예문이 보여주는 의존명사 앞에는 어떤 유형의 수식 요소이든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 (22) ㄱ. 그가 내 것을 다 가져갔다.
 ㄴ. 혼자 사는 외로운 인들에게는 은하수를 보여 드립니다.
 ㄷ. 배추를 파는 데가 어딥니까?
 ㄹ. 나는 안경이 두 개가 있다.
 ㅁ. 그 여자는 고양이를 세 마리를 데리고 산다.

자립명사 부류 중에는, 오히려 이와 반대로 어떠한 수식 성분의 선행도 용인하지 않는 명사들이 꽤 있다. 동이 나다나 유서가 깊다와 같은 관용표현 또는 연어(collocation) 구성 속의 명사들—이들은 때로는 유일 분포의 극단적 제약을 보이기도 한다—이나, 앞의 글에서 인용한 조사 결합 제약의 특이성이 있는 여러 유형의 명사들—어처구니, 능사, 명실, 미구, 서면, 일말, 불후 등등—이 우선적으로 이러한 사례로 인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의존명사는, (22)의 사례에 의거하여 지적한다면, 의미상으로도 자립명사와 대조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23) ㄱ. 책이나 쌀, 약속 등과 같은 자립명사가 지닌 특정한 지시적/기술적(묘사적) 의미가 없다.

ㄴ. 것이나 이, 데는 대상이나 실체를, 그것을 특징짓는 개별적 속성을 묘사함으로써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져가다나 보여 드리다, 어디다와 같은 서술어가 요구하는 주어나 보어 위치에 실현될 수 있는 명사의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의미 자질(‘사물’, ‘사람’ 또는 ‘처소’ 등)에 의해서만 특징지어질 수 있다.

ㄷ. 개나 마리는 대상이나 실체를 직접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미상으로 유형화하고 (폭넓게 개체화할 수 있는 구상적·추상적 대상/동물), 지시 대상으로서의 실체의 수량적 존재 양태의 표현에만 개입한다.

의존명사는 (23) ㄱ-ㄷ의 의미 특징에 따라, 형식명사로 불리우기도 한다. 자립명사는 이에 대해 실질명사로 대조될 것이다.

의존명사는 선행하는 가능한 수식성분의 성격에 따라 더 세분이 된다.

(24) ㄱ. 일반 의존명사 : 것, 이, 데, 바, 줄, 리, 터, 적 ...

- ㄴ. 단위 의존명사 : 개, 마리, 군데, 송이, 그루, 채 ... ; 손,
축, 접 ... ; 근, 관, 미터, 그램 ...

일반 의존명사는 한, 두, 세 등 수 관형사와 결합할 수 없고, 반대로 단위 의존명사 앞에는 원칙적으로 수관형사만 一또는 몇, 여러, 몇몇 등의 비한정적인 수량 표현의 관형사가 올 수 있다(그러나 내가 심은 그루/내가 가 본 군데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심은 두 그루/내가 가 본 두 군데는 가능하다). 이와 같은 기준에서 보면 동일하게 ‘처소’의 개념과 상관이 있는 의존명사 데와 군데는 명확하게 일반 의존명사/단위 의존명사로 달리 범주화될 수 있다. 의미상으로 보면, 일반 의존명사는 대체로 (23)ㄱ/ㄴ의 특성에, 단위 의존명사는 (23)ㄱ/ㄷ의 특성에 대응된다.

일반 의존명사는, 개개 어휘에 따라 양립할 수 있는 가능한 수식 성분의 유형이나 그 범위가 다르고, 격조사 결합도 자유롭지 못하며, 함께 쓰일 수 있는 서술어도 제한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것은 (20)ㄱ-ㄷ이 보여주는 여러 수식 성분의 유형 중 ㄷ 유형(명사가 직접 수식하는 경우)만을 제외하고 모든 결합이 가능하고, 격조사 제약이나 특이한 서술어 제약이 없지만, 줄이나 리, 터 등 대부분의 일반 의존명사는 여러 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만 분포된다.

예컨대, 줄은 동격절과 이런, 이러는, 이럴 계열의 대응되는 대응 표현만이 수식 성분으로 가능하며, 알다/모르다 (또는 여기다, 추측하다) 구문의 보여 자리에만 분포될 수 있고, 후행하는 격조사는 -을, -로로 제한된다.

- (25) ㄱ. 나는 춤을 출 줄(을) (안다+모른다)
 ㄴ. 나는 그가 곧 돌아올 줄 (알았다+몰랐다)
 ㄷ. 나도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다

-리는 더욱 제약을 보여, 관형형 어미 -르/-을만을 허용하는 동격절과 대

용표현 그럴만을 수식 성분으로 선택하며, 없다/있다 구문의 주어 위치에만 분포된다. 더구나 리 구문은 항상 부정의 단언에만 쓰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있다 구문 용례는 강한 부정의 단언을 나타내는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된다.

(26) 그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있니?

(=그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다)

또한, 듯(이), 대로, 만큼과 같은 몇몇 의존명사는 (1)의 속성에 대해 부정적·형태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들 요소에는 격조사가 뒤따를 수 없다—, 이들은 예외적으로 (2)의 속성에 의해서만 명사로 한정될 것이다.

단위 의존명사는 수식 성분만 수관형사로 제한되어 있을 뿐, 격조사나 서술어 결합 제약은 없다. 그러나 지시적 자립성이 없기 때문에(23.ㄷ), 반드시 자립명사에 —때에 따라서는 것, 분, 테 등의 일반 의존명사에— 의존적으로 사용된다.

대명사 그것과 그 선행사 사이에서의 관계와 유사하게, 단위 의존명사 표현을 내포한 문장의 의미 해석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지시대상이 찾아져 지시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언어적 맥락상에서(보통은 한 문장 내에서) 반드시 호응하는 선행 자립명사가 주어져야 한다. 따라서 단위 의존명사는 흔히 (22)ㄷ-ㄱ이나 (27)ㄱ-ㄴ과 같은 구성으로 사용된다.

(27) ㄱ. 내가 읽은 것 두 권은 모두 다 재미있다.

ㄴ. 나는 배추 파는 테(에)를 여러 군데(를) 둘러 보았다.

또는 다음과 같은 구성도 가능하다.

(28) ㄱ. 두 권의 책

ㄴ. 세 마리의 고양이

단위 의존명사는 넓은 의미로 분류사(classifier)로 지칭되는 명사 하위 유형에 해당하는데, 이 부류는, 한국어의 경우, 두 가지 유형으로 더 세분된다. 그 하나는 (24)ㄴ에서 앞쪽에 열거된 개, 마리, 군데, 송이 등으로 구성되는 수 분류사(numeral classifier 또는 sortal classifier)이고, 또 하나는 (24)ㄴ에서 뒤쪽에 열거된 근, 관, 미터, 그람 등으로 구성되는 측정(또는 도량) 단위 분류사(mensural classifier)이다.

측정 단위 분류사는, 대상이나 현상이 특정 차원에서 보이는 길이, 넓이, 무게, 부피, 온도 등등의 다양한 속성의 크기나 규모를 수량화해서 표현할 때 수관형사와 결합하는 단위명사로, 개별 언어의 유형론적 특성과 별 관계가 없이 범언어적으로 폭넓게 존재하는 명사 하위 유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명사의 형태론적 특성이 한국어와는 대척적인 영어나 프랑스어, 독일어 등의 언어에도 이러한 측정 단위 명사는 풍부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개, 마리, 군데 등의 수 분류사는 일부 언어, 특히 한국어와 같이 수 범주가 명사의 문법 범주로 존재하지 않는 언어에서 특징적으로 사용되는 듯하다. 수 분류사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타이어 등의 아세아 지역 언어 이외에 중남미, 오세아니아 지역의 일부 언어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어 명사는 단수/복수를 필수적으로 구분하지 않을 뿐더러, 일반적으로 수관형사의 직접 수식을 받을 수 없다(그러나 두 가족, 세 나라, 네 선생님 또는 이 두 포도주, 그 두 물과 같은 표현이 특정한 맥락에서 사용이 가능하기는 하다). 따라서 명사가 지시하는 대상을 개체화하여 그 수량을 표현하려면, 명사의 세분된 부류에 따라 호응하는 특정한 단위명사인 수 분류사를 선택하고 여기에 수관형사를 결합시켜 (22)ㄴ-ㄹ이나 (28)ㄱ-ㄴ과 같은 복합 구성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수 분류사는 명사가 지시하는 대상을 몇 가지 관점에서의 특징에 따라 분류하고—사물(개), 사람(이, 분), 동물(마리), 나무(그루), 꽃(송이) 등—, 그 대상을 개체화하였을 때 낱개로서의 단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24)ㄴ에서 중간에 열거된 손, 촉, 짚 등의 요소도 광의의 수 분류사의 또 한 종류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요소는 대상의 개체화된 낱개의 단위가 아니라, 일정 수(손: 자반 고등어 두 마리, 촉: 오징어 스무 마리)의, 또는 불특정한 수나 양의 관습적인 혹은 자연적인 묶음(바나나 한 송이)을 지칭한다.

수 분류사는 지시대상을 어떠한 관점에서 분류하는가에 따라 세분화하여 특징지을 수 있고, 어원적으로나 역사적인 변화의 측면에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또는 자립명사(사람)나 일반 의존명사(이 글을 읽을 분)가 동시에 수 분류사의 용법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 모든 양상을, 특히 다른 분류사 언어와의 유형론적 대조를 통해 그 일반성과 특수성을 드러내는 것은 한국어 명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에 대단히 뜻이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